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7. 3. 24(금)	
		작성의	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김민 (Tel. 044-200-2742) 사무관 송지영 (Tel. 044-200-2744)
<p>* 엠바고 : 3.24(금) 16:00(회의종료) 이후 사용</p>			

정부, 대선까지 공직기강 확립 활동 집중 추진

- 이석준 국무조정실장,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,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강조
- 대선 관련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엄단, 공직기강 확립 단속활동 강화 등

-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3월 24일(금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(44개)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,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 - 이번 회의는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,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개최되었다.
- 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탄핵, 5월 대선 등 매우 엄중한 국정상황을 맞아,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,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,
 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,
 - 공직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강력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-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선때까지 ①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엄단 ② 공직기강 확립활동 배가 ③ 소극행정·복지부동 차단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,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하기로 하였다.

- 한편,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선거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.